

그의 글을 마주하고 앉으면.....마음이 설렌다. 시도 그렇고, 이런저런 지면에서 접하게 되는 산문들도 그렇다. 그것은.....이정리표를 짐작하기 어려운 여행-톨게이트를 나서면 의당 질주와 도착이라는 귀결이 남을 뿐인 여행들(시나 산문이나 소설들)과는 결이 다른, 상큼한·엉뚱한·유쾌한·쓸쓸한·싸하거나 잔하거나 찡한·무어라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이 알록달록한 여행에의 초대이다.....

황영옥 · 소설가, 월간 <Booksetong> 편집위원

생의 아름다운 사잇길



왼쪽 시인 황인숙, 오른쪽 소설가 황영옥

전문 독자들이 '전복적 상상력'이라 즐겨 표현하는 그 알록달록함의 출처를, 나는 그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색깔'이라 쓰겠다. 그의 상상력이 열여가는 수많은 색깔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는 실제로 무수한 색깔이 있고, 사람 또한 그러해서 그는 대화중에 생각중에 곧잘 색깔로 빠지곤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그를 색깔로 들어서게 하는 것은 친진한 호기심에 더하여, 인간과 모든 사물을 향해 열려 있는 무한한 애정과 측은지심이 아닌가 싶다.

삼구꽃 칠쪽꽃이 만개한 어느 환한 봄날..... 쯤 길게 그의 뒤를 밟아 보면 그가 늘상 색깔로 빠져드는 연유랄까, 혹은 메커니즘(?)이랄까를 쉽사리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화사한 봄날의 한낮, 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동네 '수정쌀집'을 향해 가는 길이다. 도중에 떡집 유리창 너머로 약식이 보인다. "이 집의 약식은 각별히 맛있는데 누군가 약식을 많이 주문했을 때만 만들어서 남았을 경우 진열해 놓기 때문에 항상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조각 사서 호주머니에 넣으니 병싯 웃음이 나온다." 그런데 쌀집 문은 닫혀 있다. 한참을 두드려 봐도 아무런 기척이 없다. 대체 어딜 간 거야? 조금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다. 슈퍼마켓에 들러 쌀을 사고 생수 두 병과 달걀 한 꾸러미를 산다.

"대문을 들어서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가끔 보는 검정 고양이 같지는 않다. 그 검정 고양이는 사람이 있는 데서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는 짐을 계단에 내려놓고 고양이를 찾아본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이웃집 지붕 밑으로 노란 얼룩고양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아주 좁은 틈이다. 저기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다. 어쩌다 저 지붕에 갇혀 있는 것일까? 팔을 뻗으면 손이 닿을 것도 같은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 며칠 전에 동네 구멍가게집의 똥강아지한테 호되게 당했기 때문이다.

강아지는 가게 앞 차밭에서 네 다리를 쭉 뻗고 옆으로 누워 햇볕을 쬐며 자고 있었다. 귀염성 없이 생긴 강아지지만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 걱정스럽기도 해서 그는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여기서 자면 어떡하니?' 하며 등을 쓰다듬었다. 순간 녀석이 으르렁거리며 목을 돌려 그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다. 그는 "어이가 없었다. 몇 번 먹을 것을 주기도 했는데 이럴 수가! 얼굴에 물었지만 미안하게 됐다는 얼굴이 되거나 제풀에 움찔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면 몰수하고 사나운 표정인 게 더 괴씸했다." 이를 동안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면서 그는 쿡쿡 쑤시는 엄지손가락을 지켜보며 릴케를 생

각한다. "장미꽃을 좋아했던 릴케는 장미 가시에 찔려 죽었다고 한다. 내가 개한테 물린 게 원인이 되어 죽는다면, 개를 좋아하니 개한테 물려 죽었다고 두고두고 말해지겠지."

그 상처도 아물고..... 웃기는 죽음에 대한 우려도 강아지에 대한 빠진 마음도 없어졌지만, 웬지 선뜻 팔이 나가지지 않는다. 그는 울어 대는 고양이와 마주보고 섰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선다. "발걸음을 떼는데 고양이가 더 안타깝게 울어 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난감해서 되돌아가 보니 지붕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인간이라면 그쯤에서 다시 돌아서고 말 일이겠다. 그런데) 그는 하릴없이 지붕을 쳐다보며 '요요요' 불러 본다. 잠시 후 고양이가 다시 고개를 내민다. 고양이는 30센티미터쯤 아래에 있는 가스 파이프를 향해 앞다리를 뻗다가 거둔다. "쯤 둔하고 겁이 많은 고양이이다. 폴짝 뛰어내리면 될 것도 같구만. 무슨 판대기라도 없을까 해서 둘러보니 목련나무 옆에 하얀 플라스틱 의자가 있다. 지붕 밑에 바짝 다가가 의자를 쳐드니 10센티쯤 거리가 남는다. 팔걸이에 약간 폭이 있으니 거기를 딛고 내려오라고 고양이에게 손가락으로 짚으며 가르쳐 주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마음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는데 기특한 고양이 같으니라고!" 고양이는 그가 가르쳐 준 대로 팔걸이를 딛고 의자로 내려온다.

"불품없는 고양이이다. 털무늬도 아름답지 않고 눈은 평범한 노란색이다. 몸매도 날씬하지 않다. 의자를 땅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도 고양이는 그 위에서 계속 야옹야옹 운다. 얼마 동안이나 굶었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약식을 꺼내 조금 떼어서 의자 위에 놓아 준다. "이런 걸 먹을까 싶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잘 먹는다. 목이 메일까 싶어 달걀 하나를 깨뜨려 주었더니 그건 냄새만 맡고 먹지 않는다. 채식 고양이인가? 약식을 주는 대로 맛있게 먹는다. 계속 야옹야옹 울면서."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그에게 다가와 다리에 몸뚱이를 부빈다. 그의 주위를 빙빙 돈다. "쓰다듬어 주어야 인사일 것 같은데 벼룩이나 피부병 같은 걸 옮을까봐 가만 있었다. 애가 만약 잘 가꾸어진 깨끗하고 예쁜 고양이라면 안아 주기라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가책이 된다. 이렇게 수더분하고 붙임성 있는 고양이는 처음 봤다." 그는 감동되었지만, 그렇지만 웬지 고양이에게 방 위치를 알려 주는 게 내키지 않아 살짝 쓰다듬은 다음 성큼성큼 뛰어와 버린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뜰 여기저기서 올라온다. 왜 계속 이 집에서 왔다갔다하는 걸까? 어쩐지 나를 찾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지만, 오해일 게다. 곧 제 갈 길로 가겠지. 이 집 뜰이 마음에 들



면 거기서 살아도 좋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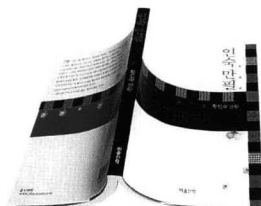
그 봄날 남산 기슭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간다. 낮 내내 서성거리며 고양이가 울고, 고양이가 울음소리로부터 기어이 귀를 돌려세우지 못했을, 그는 마음의 색길을 또 오후 내내 서성거리며... 근년 두어 해에 걸쳐 쓴 산문들을 묶어낸 그의 《인숙만필》(마음산책)은 그 수많은 색길을 감추어 지닌 비밀의 화원이다. 폐교와 교회와 미용실과 돼지갈비집이 있는 해방촌 골목들, 꽃피고 꽃지고 소나기에 젖거나 가을이 깊어가는 남산의 고샅고샅길, 때로는 먼 나라의 고적한 강변길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지인인사들의 '다글다글한 수다' 길로 어우러지기도 하는, 그 수많은 사잇길에서 그는 쉬임없이 인간과 사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선하다 선한 마음을, 다정한 손길을 내어 준다.

거기, 그의 색길에는..... 인간이 보다 인간다웠던 시절의 리듬과 정조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그 색길을 걸으면서 무언가 마음이 놓이는 듯한 느낌을 갖는 이가 나만이 아니라면, 그건 아마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굳이 뽕박질을 하지 않더라도, 핏대를 세우며 앞장을 다투지 않더라도 살아지는구나, 어리석은 듯 느릿느릿 순하게만 살아도 이렇게 살아지는구나 하는 걸 거듭 확인하는 안도감 같은 게 아니겠는지.

그 색길 어디서 강아지가 튀어나올지 고양이가 튀어나올지

뱀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것들과 그의 조우를 독특하게 만드는 비범한 감성에 늘 탄복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놓이는 한편으로, 뭔가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건, 무엇보다 그 조우들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그의 어진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를 잠시만 만나고 있어도 이내 그에게서 전해져 오는 무엇. 덩불 속에 피어 자태를 뽐내지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고샅길을 건너와 아름답자 속삭이는 풀꽃향 같은 그 마음.

그렇게, 꽃처럼 바람처럼 햇살처럼..... 그는 생의 사잇길을 살아간다. 사람이 글과 다르지 않고 글이 사람과 다르지 않은, 황인숙을 바라보노라면 생의 모든 귀한 것들은 바로 그 색길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원인에서 결과로, 동기에서 목표로, 한눈 파는 법 없이 치달리는 자들이 결코 알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할, 생의 모든 정수精髓가 그 색길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인숙만필》 황인숙 지음/마음산책/236쪽/8,500원